

漢代『方言』의 ‘朝鮮’·‘北燕’ 구역 어휘 再考*

— ‘𪛗’, ‘涅’ 및 ‘𪛖’의 어휘 목록 추가 여부를 중심으로

정재남**

— 목 차 —

1. 서론
2. 조선 구역 및 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 ‘𪛗’
 - 1) 전통 훈고학에서 『방언』 내 𪛗의 분류
 - 2) 현대 역사언어학에서 𪛗의 분류
 - 3) 『방언』 내 조선·북연 구역의 유사 유형 사례
 - 4) 소결
3. 同字多義 관계의 두 개 낱말 ‘涅’
 - 1) 涅(3-6) 및 涅(8-4)의 ‘사용 구역’ 표기 차이
 - 2) ‘同訓異表記語’의 訓義 차이
 - 3) 소결
4. 북연 구역의 낱말 ‘𪛖’
 - 1) 주요 판본상 ‘𪛖’의 ‘사용 지역’ 표기
 - 2) 『방언』의 지명 표기 사례
 - 3) 소결
5. 결론

국문초록

중국 언어학사상 가장 오래된 ‘지역낱말 언어자료’로 평가되는 漢代 『方言』에 수록된 ‘조선’ 및 ‘북연’ 구역(고조선 연고지) 어휘는 최근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조선 구역 32례, 북연 구역 55례(공통 낱말 27례, 합산 60례)로 산정하였으나, 『방언』 내 관련 문맥·訓義 검토, ‘同訓異表記語’ 사례 비교, 『방언』 주요 판본별 판독에 대한 선행연구 견해 등을 종합하면, ‘𪛗’, ‘涅’ 및 ‘𪛖’ 3례는 ‘조선’ 및 ‘북연’ 구역의 공통 낱

* 이 논문은 202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A8010226)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몽골어과 특임교수

말(‘涅’, ‘殷’) 및 ‘북연’ 구역의 낱말(‘𪛗’)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어휘 목록은 조선 구역 34례, 북연 구역 58례, 공통 낱말 29례, 합산 63례로 조정된다.

기원 전후 한반도 및 인접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낱말의 語形이 반영된 동 시대 언어 자료인 『방언』 내 조선 및 북연 구역 어휘의 추가는 문헌자료의 절대 부족으로 고대 한국어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국어사 분야는 물론 고대 한중 언어교류 분석 및 언어를 통한 당시 사회상 재구 등에 귀한 단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누룩'을 뜻하는 𪛗의 편입은 종래 확인하기 어려웠던 발효·양조 관련 어휘층을 이 구역의 논의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키워드: 방언, 고조선, 조선·북연 구역, 同訓異表記語, 殷, 涅, 𪛗

1. 서론

漢代 『方言』은 기원 전후 시기에 前漢 영토 각 지역에서 실제 사용되던 낱말¹⁾을 通語 표제어 아래 지역별로 대응시켜 채록한, 중국 언어학사상 가장 오래된 '지역낱말 언어자료'이다.²⁾ 여기에는 중원 일대의 上古漢語 계통 어휘 뿐 아니라, 전한의 행정권과 非漢族系 종족의 역사적 연고가 겹치는 지역의 基層 어휘까지 한자를 빌려 기록되었다.³⁾ 그 가운데 본래 고조선의 '서방' 영토 2천여 리'였으나 BC 3세기 초 燕國과의 전쟁으로 漢族 정권에 편입된 '北燕' 구역과, BC 108년 고조선 멸망 당시 漢郡縣이 설치된 '朝鮮' 구역의 어휘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⁴⁾⁵⁾⁶⁾ 편찬자 揚雄(BC 53-AD 18)이 각 지역 출신자에

1) 본고는 單語群을 뜻하는 '어휘(lexicon)'와 개별 單語를 뜻하는 '낱말(word)'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방언』의 정식 명칭은 『輶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이다. 황제의 명을 받은 사람[輶軒使者]이 대가 끊어진 말을 풀이하고[絶代語釋] 당대 각 지역의 말[別國方言]을 수집·편찬한 책이라는 뜻이다.

3) 『방언』의 자료 성격을 '고대한어 방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전한 내 각 지역의 소수 민족 언어까지 포괄한 '지역낱말 언어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이미 여러 연구자가 제기하였다. Andrew Chittick(2014: 3-5), 松江崇(2022: 143-147) 및 이연주(2009: 453, 458) 등 참조. 본고도 이 견해를 따른다.

게 通語에 대응하는 출신지의 말을 직접 물어 채록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어휘는 당시의 口語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표 1〉 참조)

〈표 1〉 『방언』의 조선·북연 구역 어휘 목록⁸⁾

연번	날말	條目	訓義(뜻풀이 ¹⁰⁾)	사용 지역
1	𠵿	1-8	痛(아프다), 少兒泣而不止(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다)	燕之外鄙·朝鮮洌水之間
2	京	1-12	大(크다)	燕之北鄙·齊·楚之郊
3	將	1-12		
4	虔	1-16	殺(죽이다)	秦晉之北鄙·燕之東北·翟懸之郊

- 4)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韓條 裴松之 注 所引 『魏略』: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 5) 『방언』의 언어구역 ‘北燕’은 ‘燕과 朝鮮의 사이’(燕和朝鮮之間)로서, BC 3세기 초 燕國이 東胡 및 고조선과의 전쟁을 통해 공취하고 새로 설치한 上谷郡·漁陽郡·右北平郡·遼西郡 및 遼東郡 등 소위 燕五郡을 지칭한다.(華學誠, 2006, 1029쪽) 관련 사료로 『史記』 「匈奴傳」·「朝鮮傳」 및 『三國志』 「魏書東夷傳」 所引 「魏略」 등이 있다. 본고에서 『방언』의 ‘북연’ 구역은 고조선의 역사적 영토이자, 東胡 등 북방 종족집단과 장기간 혼거한 접촉 지대의 일부로 이해한다. 『방언』에는 북연의 지명으로 ‘北燕’ 외에도 燕之北鄙, 燕之外郊, 燕代之北鄙, 燕之東北 및 北燕之外郊 등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 6) 『방언』의 언어 구역으로서 ‘朝鮮’은 전한의 고조선 병합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은 역사적·지리적 연속성을 지닌 고조선 연고지의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지리적 범위는 華學誠(2006: 1007)이 고조선 멸망 당시의 영역, 곧 오늘날의 遼寧·吉林 일부 및 한반도 북부 일대로 보는 반면, 정재남(2021: 100) 등은 한군현 설치 이후의 낙랑군 중심 권역으로 좁혀 보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방언』의 ‘朝鮮’ 구역은 전한 시기 고조선의 역사적 연고지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 7) 「揚雄答劉歆書」 관련은 華學誠(2006: 1031, 1040) 및 이연주·이연승 공동번역(2012: 권3, 204) 참조.
- 8) 劉君惠 외(1992), 陳榴(2005), 이연주(2009), 松江崇(2022) 등 다수의 선행연구가 『방언』의 ‘朝鮮’과 ‘洌水’ 두 지명을 하나로 합쳐 ‘朝鮮’ 구역으로 통칭하며, 본고도 이를 따른다.
- 9) 본 표의 기준 산정 항목(연번 1~60)은 정재남(2024a: 77~81)에 제시된 목록을 본고 논의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며, ※ 표시 3례와 집계란은 본고에서 새로 작성하였다. 본고의 기본 텍스트는 『方言校箋』(周祖謨 교전, 1993, 北京: 中華書局)이다.

5	梨	1-18	老(늙다, 늙은이)	燕·代之北鄙
6	墳	1-24	地大(땅이 크다), 凡土而高且大者(땅이 높고 큰 것)	青·幽之間
7	豐人	2-2	凡大人(큰 사람)	趙·魏之郊·燕之北鄙
8	盱	2-5	雙(쌍, 둘[二], 눈[眼])	燕·代·朝鮮洌水之間
9	揚	2-5		
10	策	2-8	小(작다), 木細枝(가는 나뭇가지)	燕之北鄙·朝鮮洌水之間
11	葉輸/ 葉榆	2-29	龔(연약하다)	燕之北郊·朝鮮洌水之間
12	搖扇	2-34	疾(빠르다)	燕之外鄙·朝鮮洌水之間
13	臧	3-5	凡民男而墮婢(여자종에게 장가간 남자), 亡奴(도망간 남자종)	齊之北鄙·燕之北鄙
14	獲	3-5	女而婦奴(남자종에게 시집간 여자), 亡婢(도망간 여자 종)	
15	譁	3-6	化(변하다, 변화시키다)	燕·朝鮮洌水之間
16	涅	3-6	化(변하다), 鷄伏卵而未孚始化時(닭이 알을 품어 막 부화될 때)	燕·朝鮮洌水之間
17	斟	3-7	汁(어울리다. 화합하다)	北燕·朝鮮洌水之間
18	莧	3-10	鷄頭(가시연, 수련과 다년초)	北燕
19	萊	3-11	凡草木刺人(초목이 사람을 찌르는 것, 가시)	北燕·朝鮮之間
20	壯	3-11		
21	癘	3-12	凡飲藥傳藥而毒(마시거나 바르는 약에 중독됨)	北燕·朝鮮之間
22	班	3-20	列(순서에 따라 나열하다)	北燕
23	鞞角	4-44	履(신발의 일종)	東北·朝鮮洌水之間
24	鎡	5-1	鍤(술)	北燕·朝鮮洌水之間
25	鉞	5-1		
26	盂	5-4	盂(바리, 사발)	海岱·東齊·北燕之間
27	罍	5-11	罍(물독, 목이 긴 병)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
28	楸	5-24	樞(말구유)	梁·宋·齊·楚·北燕之間
29	阜	5-24		
30	虧	5-27	厓(가래, 땡이)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
31	楸	5-32	櫟(나무 말뚝)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
32	樹	5-36	牀(침상), 其杠(가로대)	北燕·朝鮮之間

33	由	6-7	輔(돕다)	燕之北鄙
34	徙	6-31	行(다니다)	朝鮮洌水之間
35	謹	7-7	讓(꾸짖다, 책망하다)	北燕
36	侔莫	7-9	強(권면하다, 노력하다)	北燕之外郊
37	傑倨	7-10	罵(욕하다)	燕之北郊
38	掬/播	7-12	離(나누다, 분리하다)	燕之外郊·朝鮮洌水之間
39	噉	7-13	隸(이르다, 다다르다)	北燕
40	膊	7-15	暴(고기를 포로 떼서 말리다, 비밀을 드러내다)	燕之外郊·朝鮮洌水之間
41	晞	7-15	暴五果之類(오곡 종류를 말리는 것)	東齊·北燕·海岱之郊
42	魏盈/ 嬰盈	7-18	怒(노하다, 화내다)	燕之外郊·朝鮮洌水之間
43	踞蹠	7-19	跪(꿇어앉다)	東齊·海岱·北燕之郊
44	隄企	7-19	委痿謂之(꿇어앉아 다리가 마비되어 저린 것을 말함)	東齊·海岱·北燕之郊
45	平均	7-22	賦(세금을 매기다)	燕之北鄙·東齊北郊
46	釗	7-24	遠(멀다)	燕之北鄙
47	漠漫	7-25	懣(번민하다)	朝鮮洌水之間
48	眠眩	7-25		
49	簪	7-30	簪(메다, 등에 지다)	燕之外郊·越之垂·甌·吳之外鄙
50	樹植	7-31	立(무언가를 세우다)	燕之外郊·朝鮮洌水之間
51	貉	8-2	貉(맹수의 일종)	北燕·朝鮮之間
52	抱	8-4	伏鷄(알을 품은 닭)	北燕·朝鮮洌水之間
※ (16) 11)	涅	8-4	伏鷄(알을 품은 닭), 其卵伏而未孚始化(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음)	北燕·朝鮮洌水之間
※	[穀]	8-4	爵子及雞雛(새끼 새와 병아리)	北燕·朝鮮洌水之間
53	豨	8-5	猪(돼지)	北燕·朝鮮之間
54	鷓鴣	8-9	尸鳩(오디새, 삿꾸기)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
55	鷓	8-9		
56	蠨蛸	8-10	蝙蝠(박쥐)	北燕
57	祝蜺	8-15	守宮(도마뱀)	北燕
58	蟪蛄	11-16	蟪蛄(거미)	北燕·朝鮮洌水之間

59	蚰蜒	11-15	蚰蜒(그리마, 마디발 동물)	北燕
60	蛆蟻	11-18	馬蚊(노래기)	北燕
※	[麴]	13-151	麴(누룩)	北鄙 [→北燕]

* ※ 표시 3례(麴·涅(8-4)[麴])는 기존 선행연구의 목록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으로, 본고가 추가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이다. []는 기존 목록에 등재 자체가 없는 낱말을 가리킨다.

** 집계: 기존 기준 — 조선 32례, 북연 55례, 공통 27례, 합산 60례 / 본고 조정 — 조선 34례, 북연 58례, 공통 29례, 합산 63례. 본고가 조정 이전의 기준선으로 삼는 구체적 목록은 정재남(2024a: 77-81)이며, 산정 기준의 상세는 5장에 제시한다.

북연 구역과 조선 구역은 공통 낱말의 비중이 각기 전체 어휘의 약 절반 및 8할에 가깝기에, 현대 중국학계는 두 지역을 같은 언어권으로 묶어, 漢代 12개 ‘方言區’ 중 하나인 ‘북연·조선 方言區’로 별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¹²⁾

또한 두 구역에는 같은 조목·같은 의미장 안에서 병렬되는 ‘同訓異表記語’(개념 규정은 3장 2)항 참조) 유형의 낱말이 전체의 약 1/3인 11쌍 22례를 차지한다. 이 ‘동훈이표기어’는 같은 언어 계통의 갈래 즉, 현대언어학에서 규정하는 방언일 수도 있고, 다른 언어 계통의 낱말 간 다양한 어형 병존으로서 언어 경쟁을 뜻할 수 있다.

이처럼 『방언』은 전한 말기 시점에 전한 왕조 영역 내의 다양하고 생생한 언어 상황을 전하는 1차 문헌자료로서, 漢語 語彙史, 語音史 및 중국문화사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내외의 수많은 민족 언어의 어휘, 음운 및 각 민족 관계사 연구 등에도 귀한 단서를 제공한다.¹³⁾ 이에 따라 고대 한반도 및 고조선 연고지 언어자료의 절대 부족이라는 조건에서, 『방언』의 조선 구역 및 북연 구역 어휘는 한국어사 및 고대 동북아 언어접촉사 연구 등에서 최근 들어 새로운 비교 자료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¹⁴⁾

10) 한국어 뜻풀이는 기본적으로 이연주·이연승(2012)의 공동 번역을 따른다.

11) 연번 16과 同字. 기존 선행연구는 涅(3-6)과 涅(8-4)를 1례로 합산하나, 본고는 별도 산정 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이다.

12) 劉君惠 외(1992), 李恕豪(2003), 王智群(2011), 王彩琴(2011) 및 吳吉煌(2011) 등 참조.

13) 李敬忠(1987), 64쪽.

14) 김양진(2018), 엄순천(2018), 이성규(2018), 정재남·이도학·변지원(2019), 정재남(2022a,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 언어 자료가 갖고 있는 학술적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심 및 연구가 국내외 학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을 나타내는 문제의 하나가 바로 『방언』에 수록된 조선 및 북연 구역 어휘 목록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여러 선행연구¹⁵⁾에서 대체로 『방언』의 조선 구역 어휘를 32례, 북연 구역 어휘를 55례로 산정하고, 두 지역의 공통 낱말을 27례로 보아왔다. 하지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낱말이 각기 다른 사유로 목록에서 누락 또는 합산되었다. 곧 𪎮(8-4)는 같은 조목에 대등하게 배열되었음에도 목록에서 누락되었고, 溼(8-4)은 字形이 같은 溼(3-6)과 1례로 합산되었으며, 麴(13-151)는 사용 지역 표기 ‘北鄙’의 판독 문제로 북연 구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본고는 이들 세 낱말이 각기 조선 구역 및 북연 구역 어휘 목록에 추가되어야 할 언어학적 논거를 학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석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2. 조선 구역 및 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 ‘𪎮’

『방언』에 수록된 조선·북연 구역 어휘는 언어 계통에 대한 논쟁¹⁶⁾을 포함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어휘 목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¹⁷⁾

2026) 등 참조

15) 중국학계 劉君惠·李恕豪·楊鋼·華學誠(1992), 李恕豪(2003), 陳榴(2005), 華學誠(2006), 王彩琴(2011), 王智群(2011), 한국학계 이연주(2009), 정재남(2017) 그리고 일본학계 松江崇(2022) 참조.

16) 『방언』의 조선 구역 어휘 중 대다수를 ‘古代漢語의 方言’으로 보는 견해는 중국학계 劉君惠·李恕豪·楊鋼·華學誠(1992), 李恕豪(2003), 陳榴(2005), 북한학계 리지린(1962, 2018), 리상호(1964), 한국학계 이현숙(1995), 박대재(2015) 및 일본학계 松江崇(2022) 등이다. 이와 달리 조선 구역 어휘 중 상당수에 대해 ‘소수민족 언어’ 또는 ‘조선어’ 즉, 고조선어로 보는 견해는 중국학계 周振鶴·游汝杰(2006), 劉葉秋(2015) 및 한국학계 이연주(2009), 정재남(2017, 2022b, 2024a) 등이 있다.

이러한 논란 중 하나가 『방언』 본문에 조선 구역 및 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로 수록된 鷓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선 및 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 목록에 포함된 抱와 涅과 함께, 鷓가 수록된 『방언』의 본문(8-4)은 다음과 같다.

鷓, 陳楚宋魏之間謂之鷓鴣, 桂林之中謂之割鷓, 或曰鷓, 北燕朝鮮洌水之間謂伏鷓曰抱, 爵子及雞雛皆謂之鷓, 其卵伏而未孚始化謂之涅。(8-4)
: 닭[鷓]은 陳, 楚, 宋 및 魏 구역에서는 鷓鴣라고 하고, 桂林 구역에서는 割鷓라고 하며, 또 鷓이라고도 한다. 北燕 및 朝鮮洌수지역에서는 ‘알을 품은 닭’을 抱라고 한다. ‘새끼 새와 병아리’를 모두 鷓라고 한다. 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것을 涅이라고 한다.

이 구문의 지역 표시 ‘北燕朝鮮洌水之間’은 직접적으로는 抱 앞에 놓여 있으나, 이어지는 鷓·涅 역시 같은 鷓 관련 조목 안에서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문맥상 이 지역 표시가 抱뿐 아니라 鷓·涅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방언』 본문에서 ‘鷓’만을 달리 취급하거나 다르게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또는 논거를 찾기 어렵다. 즉, 鷓는 ‘鷓’와 관련된 ‘지역 낱말’(『방언』들만을 모아서 설명한 이 조목(8-4)에서 2음절어 鷓鴣, 割鷓 2례 및 1음절어 鷓, 抱, 涅 3례와 더불어 대등하게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 언어학계에서 중국학계는 물론 한국·일본학계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방언』 권8에 수록된 ‘알을 품은 닭’이라는 뜻의 ‘抱’ 및 ‘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涅’을 조선·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 목록에 포함시켜 분석하면서도, 정작 같은 조목에 함께 수록된 ‘새끼 새와 병아리’를 뜻하는 ‘鷓’은 분석 대상에서 굳이 제외하였다.(상세는 본절 ‘2’)항 참조)

17) 『방언』에 대하여 근대 이전 한반도에서는 李義鳳의 『古今釋林』(1789) 외에 관련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 한국학계에서는 공재석(1975)이 『방언』의 조선 구역 어휘를 최초 소개한 이후 중국학계의 여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줄곧 조선 구역 낱말 수를 32례로 계산하여 왔다. 이에 대해 정재남(2024b)은 鷓(8-4)를 조선 및 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이의 제기를 하였다.

1) 전통 훈고학에서 『방언』 내 𪚩의 분류

『방언』 관련 후대 연구자들이 교감한 『방언』 본문 및 교감 기록 등¹⁸⁾에서 𪚩에 대해 같은 조목의 抱 및 涇과 함께 조선 및 북연 구역의 낱말로 정리하였으며, 𪚩만을 달리 분류하거나 배제한 내용이나 단서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방언』 본문에 수록된 𪚩의 음과 관련, 『四部叢刊』 본에는 “音顧”로 되어 있으나 戴震은 曹毅之 본에 의거하여 “音狗寶”로 고쳤으며 盧文弨도 이를 따랐다. 다만, 華學誠은 戴震을 따르지 않고 『四部叢刊』 본이 옳다고 보았다. 이처럼 『방언』의 주요 교감자들이 𪚩에 대해 校釋한 것은 𪚩가 ‘방언’ 낱말로 서 『방언』 본문에 수록된 것 자체에 대해 별 이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戴震은 자신이 교감한 『방언소증』에서 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國語·魯語』에 “새들이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먹여 기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韋昭의 「注」에서 “먹여 살리는 것을 𪚩 라고 한다”고 했다. (중략) 『爾雅』에서 “갓 태어난 새 새끼를 먹이고, 병아리를 부리로 쪼아 알에서 깨어나게 한다”고 했는데, 『經典釋文』에서 “𪚩는 먹여줘야 하는 새 새끼로 제비, 참새 같은 종류”라고 했다. 어린 새가 태어날 때 스스로 쪼을 수 있으면 爵雀이라고 한다. ‘囓’와 ‘涇’은 옛날에는 통용되었다. ‘音狗寶’를 여러 판본에서 ‘音顧’라고 했지만, 曹毅之 본을 따른다.¹⁹⁾²⁰⁾

戴震의 상기 설명 내용과 관련하여, 𪚩는 『國語』·『爾雅』 등 상고 문헌에 널리 나타나므로 이를 通語로 보아 목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18) 『방언』 관련 연구는 郭璞(276-324)의 『方言注』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청대 고증학 및 성운학 발달과 함께 『방언』에 대해서도 청대 戴震(『方言疏證』), 王念孫(『方言疏證補』), 錢繹(『方言箋疏』) 및 盧文弨(『重校方言』) 등 여러 훈고학자가 문헌 용례 및 음운 분석을 통한 校勘을 하였다. 이러한 『방언』 교감의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져 周祖謨(『方言校箋』, 1993) 및 華學誠(『揚雄方言校釋匯證』, 2006)이 교감한 『방언』의 새로운 판본이 출간되었다.

19) 이연주·이연승 번역(2012), 권1, 81쪽.

20) 『爾雅』 권17 「釋鳥」 '生哺, 𪚩; 生囓, 雛' 참조.

필요가 있다. 그러나 8-4 조목의 통사 구조상 '北燕朝鮮洌水之間謂'의 관할 범위가 抱·𪛗·洌 세 구절 전체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며('皆'는 '爵子'와 雞雛를 아울러'의 뜻으로 대상의 총괄이지 지역의 총괄이 아님), 만약 𪛗가 通語였다면 편찬자가 조목 서두의 통어 '鷄'와 병렬로 제시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문 내적 증거는 𪛗를 지역말('방언')로 봄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역대 주요 교감자들은 『방언』 본문의 𪛗(8-4)에 대해 같은 조문에 함께 수록된 다른 '방언' 낱말인 抱 및 洌 등과 차별 없이 교감하였으며, 적어도 𪛗를 본문에서 배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현대 역사언어학에서 𪛗의 분류

현대 역사언어학의 선행연구에서도 𪛗(8-4)의 처리는 사정이 다르지 않다. 조선·북연 구역 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언어 계통을 분류한 연구는 물론, 주변 언어와의 음운 대응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𪛗는 일관되게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제외의 이유나 학술적 논거를 밝힌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방언』의 조선 구역 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언어 계통 분류를 시도한 선행 연구인 陳榴(2005), 이연주(2009, 2018) 및 정재남(2022b, 2024a) 역시 분석 대상에서 𪛗가 누락되었고, 북연 구역 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언어 계통 분류를 시도한 정재남(2017, 2023a, 2024a)에서도 분석 대상에 𪛗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연주·이연승(2012: 권3 489)은 공동 번역한 『방언소증』 권3 「부록 6. 『방언』 어휘별 사용지역」에서 여타 낱말 5례 및 通語 '鷄'와 함께 𪛗(8-4)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는 소위 부재 논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방언』의 조선 구역 어휘와 몽골어, 만주어 및 어원 커어 등 동아시아 3개 언어의 동의어·유의어 간 음운 비교를 분석한 이성규(2018), 김양진(2018), 엄순천(2018) 그리고 북연 구역 어휘 전체와 고전 몽골어 대응 낱말 간 음운 대응을 분석한 정재남·이도학·변지원(2019) 등에서도 그 분석 대상에 𪛗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𪛗를 누락시킨 이유 내지 학술적

논거 등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

3) 『방언』 내 조선·북연 구역의 유사 유형 사례

『방언』 본문에 조선·북연 구역 여타 낱말 중에는 𪔐(8-4)와 마찬가지로 『방언』 이전 중국 고대문헌 특히 『爾雅』와 같이 권위 있는 字書에서 동의어 내지 유의어로 수록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표 2〉 참조)

〈표 2〉 『이아』와 『방언』 간 동형한자 동의어의 의미 비교분석

『방언』		『이아』		의미 관계
피훈어(條目) : 사용 구역	訓義 (뜻풀이)	동형한자어 (篇名·卷号)	訓義 (뜻풀이)	
京 (1-12) : 北燕·中原	大(크다)	京 (釋詁·1)	大(크다)	같음
		京 (釋丘·10)	絶高(높다)	유사
將 (1-12) : 北燕·中原	大(크다)	將 (釋詁·1)	大(크다)	같음
墳 (1-24) : 北燕·中原	地大(땅이 크다), 凡土而高且大者 (땅이 높고 큼)	墳 (釋詁·2)	大(크다)	유사
		墳 (釋地·9)	墳(제방)	유사
		墳 (釋丘·10)	大防(제방)	유사
策 (3-11) : 朝鮮·北燕	凡草木刺人(초목이 사람을 찌르는 것, 가시)	策 (釋草·13)	刺(찌르다)	같음
斛 (5-27) : 朝鮮洌水·北燕	甬(가래, 팽이)	斛 (釋器·6)	甬(삼)	같음
𪔐 (8-4) : 朝鮮洌水·北燕	爵子及雞雛 (새끼 새와 병아리)	𪔐 (釋鳥·17)	生哺 (어린 새)	같음

이처럼 『爾雅』에 동형한자어이면서 뜻도 같거나 유사하게 수록된, 전형적인 通語 訓釋 형식의 유형 6례 가운데 오로지 𪔐만이 『방언』 어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타당한 학술적 논거를 찾기 어렵다. 𪔐(8-4)를 어휘 목록에서 제외한 여타 선행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4)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언』 본문에 조선·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로 수록된 ‘새끼 새 및 병아리’라는訓義의 鷄(8-4)는 같은 조문에서 공통 훈어인 ‘鷄’와 관련된 여타 5개 낱말 즉, 鷄, 鷄, 鷄, 抱 및 涅과 대등하게 ‘방언’ 낱말로 열거되었다. 이는 『방언』의 역대 주요 판본에서 모두 동일하며, 역대 여러 교감자들은 도리어 鷄(8-4)의 발음에 주목하여 그 발음에 대한 주석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鷄(8-4)이 抱(8-4) 및 涅(8-4)과 함께 조선·북연 구역의 어휘 목록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주요 논거이다.

3. 同字多義 관계의 두 개 낱말 ‘涅’

『방언』에는 조선·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로 쓰인 涅(8-4)과 字形이 같은 涅(3-6)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본문 및 번역문 중 【 】 안은 郭璞注)

鷄, 鷄【訛言】, 鷄【五瓜反, 皆化聲之轉也】, 涅, 化也。燕朝鮮洌水之間曰涅, 或曰鷄。鷄伏卵而未孚【音赴】, 始化時謂之涅。(3-6)
: 鷄, 鷄【음은 訛言의 訛다】, 鷄【음은 五瓜反이다, 모두 化의 ‘소리가 바뀐 것[聲之轉]’이다】, 涅은 ‘변화하다, 변화시키다[化]’의 뜻이다. 燕과 朝鮮洌水에 걸친 지역에서는 涅이라고 하거나, 혹은 鷄라고 한다. 닭이 었드려 알을 품는데 아직 부화되지 않다가【孚의 음은 赴이다】, 처음 부화되기 시작할 때는 涅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涅(8-4)과 涅(3-6)은 字形은 같지만 조목과 문맥이 다른데도,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양자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해 온 것으로 보인다.²¹⁾

예를 들어, 陳榴(2005: 585-586)는 『방언』에 수록된 조선 구역 개별 낱말

전체에 대한 언어 계통 분류를 시도하면서 涇(3-6) 및 涇(8-4)에 대해 하나의 낱말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즉, 涇의 訓義를 '化'(변하다, 변화시키다)로 국한하여 '嘩'('譁'의 異體字 내지 通假字)와 함께 언어계통을 분석하면서 그 언어계통을 '漢語에 속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즉, 陳榴가 분석한 대상은 涇(3-6) 1례뿐이며, 涇(8-4)에 대해서는 분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 다만, 涇(8-4)과 함께 본문에 수록된 抱(8-4)에 대해서는 '伏鷄'라는 훈의에 기반하고 聲韻 분석을 통해 '漢語詞'로 분류하였다.(陳榴 2005: 588)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에서 涇(3-6)만을 포함시키고 涇(8-4)을 제외한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해당 연구가 『방언』의 조선 구역 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涇(3-6)과 涇(8-4)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吳吉煌(2011)은 『방언』 및 『설문해자』에 수록된 어휘를 바탕으로 兩漢代 언어구역을 28개 '方言區'로 세분하여 분석하면서, 涇(3-6)에 대해 훈의가 같은 譁(3-6)와 더불어 어휘 목록 및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지만(吳吉煌 2011, 265쪽, 연번 111항), 涇(8-4)에 대해서는 훈의가 같은 抱(8-4)는 어휘 목록 및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지만 정작 涇(8-4)을 포함하지 않았다.(吳吉煌 2011, 287쪽, 연번 322항) 이처럼 중국학계의 陳榴(2005) 및 吳吉煌(2011) 등은 『방언』의 조선 구역 어휘 목록과 분석 대상에서 涇(3-6)과 涇(8-4)를 하나의 낱말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涇(3-6)과 涇(8-4)은 비록 자형이 같지만 하나의 낱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학술적 이유 및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涇(3-6) 및 涇(8-4)의 '사용 구역' 표기 차이

21) 본고의 낱말 산정 단위는 '조목 단위의 어휘적 용법(의미 단위)'이다. 즉 동일 자형이라도 각 조목에서 대립하는 동훈이표기어 및 공통 훈의가 상이한 의미장에 속하여 당시 언어사회에서 별개 단위로 기능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개 낱말로 계수한다.

현재 전해지는 『방언』의 주요 판본(예를 들어, 戴震의 『方言疏證』, 周祖謨의 『方言校箋』 및 華學誠의 『揚雄方言校釋匯證』)에는 涇(3-6)과 涇(8-4)의 자형은 같지만 條目(卷-行)은 물론 사용 구역도 다르게 표기되었다.

- 涇(3-6): “燕朝鮮洌水之間”(燕 구역과 조선열수 구역에 걸친 지역)
- 涇(8-4): “北燕朝鮮洌水之間”(北燕 구역과 조선열수 구역에 걸친 지역)

즉, 사용 지역 표기에서 涇(3-6) 및 涇(8-4)은 공통적으로 ‘朝鮮洌水’ 구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표기되었지만, 이외에 涇(3-6)은 ‘燕’ 구역에서 사용되었고, 涇(8-4) 경우는 ‘北燕’ 구역에서 사용되었다는 표기 차이가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 지역 표기의 차이는 涇(3-6)과 涇(8-4)이 서로 다른 낱말로 보아야만 하는 결정적인 논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周祖謨(1993: 19)는 『방언교전』의 涇(3-6) 관련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北’자가 탈락된 ‘北燕’의 ‘誤記’라는 견해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案本書卷八云: “北燕朝鮮洌水之間謂伏鷄曰抱. 其卵伏而未孚始化謂之涇”, 文與此同. 此條‘燕’上疑脫‘北’字.

: 이 책의 권8을 살펴본 의견은 다음과 같다. “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에서는 ‘알을 품은 닭’을 抱라고 한다.” (권3의 涇 역시) 문장은 이와 같다. 이 조목(3-6)은 ‘燕’자의 앞에서 ‘北’자가 탈락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 戴震(『방언소증』)은 별도 견해 표명이 없었다. 반면, 華學誠(2006: 187)은 ‘燕朝鮮洌水之間’에 대한 각주 설명에서 王念孫의 견해(王念孫手校本에 ‘燕’ 위에 ‘北’자가 있다는 교감 기록) 및 周祖謨의 위 각주 내용을 소개하면서 명시적 반론을 덧붙이지 않았다. 따라서 華學誠의 입장은 적어도 해당 교감설을 중요한 참고 견해로 병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대로 涇(3-6) 및 涇(8-4)의 사용 지역이 본래 같았다는 견해를 적극 수용하더라도, 단지 사용 지역이 같았다는

사정만으로 涅(3-6) 및 涅(8-4)이 같은 낱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방언』에는 사용 지역이 같으면서 그 訓義까지 같거나 유사한 낱말이 涅(3-6) 및 涅(8-4)을 포함하여 조선 구역 어휘의 약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음 항목의 설명 및 <표 3> 참조)

2) ‘同訓異表記語’의 訓義 차이

『방언』에는 같은 지역에서 사용되면서 뜻[訓義]까지 같거나 유사하지만 발음 및 음절 등이 서로 다른 소위 ‘同訓異表記語’(동일 조목 및 동일 의미장 안의 병렬 어휘) 유형의 낱말들이 있다. 이 ‘동훈이표기어’는 같은 ‘方言區’ 또는 차하위 언어구역에서 함께 사용된 말이라는 점에서 같은 언어구역 내에서 같은 훈의를 가진 낱말 사이에 어형 병존²²⁾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 언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구역에 직접 해당하는 同訓異表記語는 盱·揚(2-5), 譚·涅(3-6), 萊·壯(3-11), 鏹·鉞(5-1), 漠漫·脈眩(7-25), 抱·涅(8-4), 鷗鴉·鷗(8-9)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膊·晞²³⁾(7-15)는 晞의 사용 지역에 조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선 구역 同訓異表記語 통계에서는 제외하고, 북연 관련 비교 사례로만 별도 언급한다. 이처럼 전체 어휘의 절반에 가까운 낱말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면서 서로 어형 병존을 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22) 본고에서 ‘어형 병존’은 동일 또는 인접 언어구역에서 유사 訓義를 가진 복수 어형이 병존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로 사용한다. 이는 곧바로 어느 한 어형의 소멸이나 사회언어학적 우열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23) 晞(7-15, 사용지역: ‘東齊·北燕·海岱之郊’)는 훈의가 暴五果之類(오곡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대립되는 膊(7-15: 사용지역 ‘燕之外郊[북연 구역의 별칭]·朝鮮洌水之間’)의 훈어 暴(고기를 포로 떼서 말리다, 비밀을 드러내다)와 대립되지만, 晞(7-15)의 사용지역에 북연 구역은 공통되지만, 조선 구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 3〉 조선 구역의 同訓異表記語(‘어형 병존’ 해당 낱말) 목록²⁴⁾

구분	낱말	조목	訓義(뜻풀이)	사용지역
1	盱	2-5	雙(쌍, 둘[二], 눈[眼])	燕·代·朝鮮洌水之間
	揚	2-5		
2	譚	3-6	化(변하다, 변화시키다)	燕·朝鮮洌水之間
	涅	3-6	化(변하다, 변화시키다), 鷄伏卵而未孚始化時(닭이 었드려 알을 품는데 아직 부화되지 않다가 처음 부화되기 시작할 때)	
3	萊	3-11	凡草木刺人(초목이 사람을 찌르는 것, 가시)	北燕·朝鮮之間
	壯	3-11		
4	鏤	5-1	鏤(가마술)	北燕·朝鮮洌水之間
	鉸	5-1		
5	漠漫	7-25	懣(번민하다)	朝鮮洌水之間
	賑賑	7-25		
6	抱	8-4	伏鷄(알을 품은 닭)	北燕·朝鮮洌水之間
	涅	8-4	伏鷄(알을 품은 닭), 其卵伏而未孚始化(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것)	
7	鷓鴣	8-9	尸鳩(오디새, 뻐꾸기)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
	鷓	8-9		

이처럼 당시 조선 구역에서 ‘어형 병존’에 해당되는 낱말 가운데 涅(3-6) 및 涅(8-4)이 모두 포함되지만, 그 대립되는 訓義와 대응되는 낱말은 서로 다르다. 즉, 涅(3-6) 및 이에 대립되는 낱말인 譚(3-6) 사이의 공통 훈의는 ‘化’(변하다, 변화시키다)이고, 涅(8-4) 및 이에 대립되는 낱말인 抱(8-4) 사이의 공통 훈의는 伏鷄(알을 품은 닭)이기에 서로 다르다. 다만 개별 훈의는 ‘鷄伏卵而未孚始化時’와 ‘其卵伏而未孚始化’로 거의 같다.

24) 정재남(2023b), 15-16쪽 참조.

3)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涅(3-6)과 涅(8-4)은 字形이 같고, 周祖謨(1993: 19)의 '北'자 탈락 교감을 수용하면 사용 지역도 '北燕朝鮮洌水之間'으로 같아진다. 그러나 조선 구역 어휘의 약 절반이 '동훈이표기어'인 만큼 사용 지역의 동일성만으로 같은 낱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두 항목은 어형 병존에서 대립의 기반이 되는 공통 훈의와 대립 낱말이 서로 다르다.(〈표 4〉 참조)

〈표 4〉 涅(3-6) 및 涅(8-4)의 '어형 병존' 대립 낱말 및 訓義 차이

구분	대립어	공통 훈의 (대립어 간)	독자적 훈의 (대립어와 무관)	사용 지역
涅 (3-6)	譁 (3-6)	化 (변하다)	鷄伏卵而未孚始化時(닭이 알드려 알을 품는데 아직 부화되지 않다가 처음 부화되기 시작할 때)	(北)燕朝鮮 洌水之間
涅 (8-4)	抱 (8-4)	伏鷄 (알을 품은 닭)	其卵伏而未孚始化(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것)	北燕朝鮮洌 水之間

위의 어형 병존 사례에서 나타나는 訓義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만약 두 항목이 의미까지 같은 하나의 용법이었다면, 편찬자가 굳이 '化'와 '伏鷄'라는 별개 훈의의 조목에 나누어 수록하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두 항목은 당시 언어사회에서 별개 단위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항목의 어휘론적 지위와 목록 계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별 訓義가 '鷄伏卵而未孚始化時'와 '其卵伏而未孚始化'로 사실상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두 항목은 동음이의어라기보다 多義 관계로 볼 여지가 크며, 본고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수 단위를 '표제 字形'으로 잡으면 1례, '조목 단위의 어휘적 용법'으로 잡으면 2례가 되므로, 지위 판정과 계수는 별개의 문제이다. 『방언』에서 낱말이 확인되는 최소 단위가 조목인 이상 본고는 후자를 채택하되, 字形 단위로 계수한 수치도 함께 제시한다.²⁵⁾

25) 多義 관계로 볼 경우 편찬자가 하나의 낱말을 '化' 의미장의 조목(3-6)과 '鷄' 의미장의

4. 북연 구역의 낱말 ‘麴’

『방언』의 북연 구역 어휘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중에서 북연 구역 어휘 목록에 麴(누룩)이라는 훈의를 가진 麴(13-151)를 포함시킨 연구자는 吳吉煌(2011: 303) 및 松江崇(2022: 142) 등으로 드물며, 다수 선행연구자는 ‘麴’를 어휘 목록 및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⁶⁾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논거, 곧 주요 판본 및 인용 문헌의 판독 상황과 『방언』 자체의 지역 표기 관행에 비추어 보면, 麴(13-151)를 북연 구역 어휘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요 판본상 ‘麴’의 ‘사용 지역’ 표기

『방언』의 주요 판본 본문에서 ‘麴’의 사용 지역 표기 및 이에 대한 역대 주요 교감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대 戴震의 『방언소증』(이연주·이연승 역, 2012, 권3: 180-181)은 ‘麴’가 사용된 지역을 ‘北鄙’(북쪽 변두리)라고 판독하였으며, 별도의 관련 의견 제시는 없다.

麴, 麴, 麴, 麴, 麴, 麴, 麴, 麴也。自關而西秦隴之間曰麴, 晉之舊都曰麴, 齊右河濟曰麴, 或曰麴, 北鄙曰麴。麴, 其通語也。(『방언소증』)

조목(8-4)에 나누어 배치한 것이 되는데, 이는 조목을 공통 訓義 단위로 구성하는 『방언』의 편찬 체제에 부합한다. 곧 두 조목에 나뉘어 수록된 사실 자체는 어느 쪽으로 보든 동일하게 설명된다. 한편, 조선 구역 어휘의 약 절반이 동훈이표기어라는 점에서, 字形의 동일성만으로 합산하는 방식은 이 자료의 기술 방식과 어긋난다.

26) 劉君惠 외(1992), 李恕豪(2003), 정재남·이도학·변지원(2019) 및 정재남(2017, 2023a, 2024a)에서 『방언』의 북연 구역 어휘 목록 및 분석 대상에 麴(13-151)가 보이지 않는다.

: 𪎭, 𪎮, 𪎯, 𪎰, 𪎱, 𪎲 및 𪎳는 누룩[麴]이다. 함곡관으로부터 서쪽 秦 및 幽에 걸친 구역에서는 𪎭이라고 하고, 晉의 옛 수도에서는 𪎮라고 하며, 齊의 오른쪽 황하와 濟에서는 𪎯이라고 하거나 혹은 𪎰라고 하며, **북쪽 변두리[北鄙]에서는 𪎱라고 한다.** 𪎳은 그 通語이다.

이어 周祖謨의 『방언교전』(1993: 89) 역시 본문에서 ‘𪎱’이 사용된 지역을 ‘北鄙’로 판독하였다. 하지만, 周祖謨는 각주를 통해, 『태평어람』 및 『集韻』의 관련 기술에 근거하여 ‘北鄙’는 마땅히 ‘北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北鄙’御覽卷八五三及集韻支韻頻彌切𪎱下引均作‘北燕’。當據正。(『방언교전』 각주)
: ‘北鄙’는 『太平御覽』 권853 및 『集韻』 支韻의 ‘頻彌切’에 딸린 ‘𪎱’자 항목 아래 인용문에 모두 ‘北燕’으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이를 근거로 삼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최근까지 알려진 『방언』의 역대 판본을 모두 匯證하였다는 華學誠(2006: 994)은 『방언』 본문에서 ‘北鄙’를 유지하되, 王念孫·錢繹·周祖謨가 이를 ‘北燕’으로 고친 견해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병기하였다.

北鄙：王念孫手校明本改作‘北燕’，錢繹方言箋疏亦改作‘北燕’，云：“今據集韻所引改。”周祖謨方言校箋：“御覽卷八五三及集韻支韻頻彌切𪎱下引均作‘北燕’。當據正。”
: ‘北鄙’는 왕념손이 『방언』의 명대 판본을 손수 교감(校勘)하여 ‘北燕’으로 고쳐 썼고, 전역 또한 『방언전소』에서 ‘北燕’으로 고쳐 쓰면서 말하기를 “지금 『집운』에 인용된 바에 의거하여 고친다.”라고 하였다.
[이하 周祖謨의 견해는 앞의 번역과 같다.]

2) 『방언』의 지명 표기 사례

앞의 13-151 조목에서 보듯, 通語 麴(누룩)에 대응하는 낱말 7례 가운데

사용 지역이 병기된 것은 5례인데(𨾏·𨾏는 표기 자체가 없다), '北鄙'라고 막연히 병기된 𨾏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 지명을 명기하였다.

나아가 '鄙'가 『방언』 전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周祖謨 『方言校箋』 본문을 기준으로 '鄙'자의 용례를 전수 조사하면 모두 21회가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故其鄙語曰薄努'(1-32)의 '鄙語'는 '속된 말'을 뜻하여 지역 표기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지역 표기로 쓰인 용례는 20회(19개 조목)이다. 그 전체 내역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방언』 내 '鄙'의 전체 용례 목록

연번	조목	표기	유형	낱말	관련 원문 (발췌)
1	1-8	燕之外鄙	지명+之+鄙	𨾏	燕之外鄙·朝鮮洌水之間, 少兒泣而不止曰𨾏
2	1-12	燕之北鄙	지명+之+鄙	京·將	燕之北鄙·齊楚之郊或曰京, 或曰將
3	1-16	晉之北鄙	지명+之+鄙	劉	晉之北鄙亦曰劉
4	1-16	秦晉之北鄙	지명+之+鄙	度	秦晉之北鄙…謂賊爲度
5	1-18	燕代之北鄙	지명+之+鄙	黎	燕代之北鄙曰黎
6	2-2	燕之北鄙	지명+之+鄙	豐人	趙·魏之郊·燕之北鄙, 凡大人謂之豐人
7	2-8	燕之北鄙	지명+之+鄙	策	燕之北鄙·朝鮮洌水之間謂之策
8	2-34	燕之外鄙	지명+之+鄙	搖扇	燕之外鄙·朝鮮洌水之間曰搖扇
9	3-5	齊之北鄙	지명+之+鄙	臧·獲	齊之北鄙·燕之北郊, 凡民男而聾婢謂之臧
10	6-7	燕之北鄙	지명+之+鄙	由	燕之北鄙曰由
11	6-43	陳之東鄙	지명+之+鄙	摩	陳之東鄙曰摩
12	7-5	秦晉之西鄙	지명+之+鄙	哨	秦晉之西鄙·自冀隴而西使犬曰哨
13	7-15	秦之西鄙	지명+之+鄙	膊	東齊及秦之西鄙言相暴僂爲膊
14	7-22	燕之北鄙	지명+之+鄙	平均	燕之北鄙·東齊北郊凡相賦斂謂之平均
15	7-30	吳之外鄙	지명+之+鄙	簪	燕之外郊·越之垂甌·吳之外鄙謂之簪
16	10-2	荊之南鄙	지명+之+鄙	曾·訾	湘潭之原·荊之南鄙謂何爲曾
17	10-9	東齊周晉之鄙	지명+之+鄙	囁	東齊·周·晉之鄙曰囁
18	10-11	九嶷荊郊之鄙	지명+之+鄙	遙	九嶷·荊郊之鄙謂淫曰遙
19	10-26	荊揚之鄙	지명+之+鄙	膊(兄)	荊·揚之鄙謂之膊

20	13-151	北鄙	단독 표기 (유일 사례)	𪔐	或曰𪔐, 北鄙曰𪔐. 𪔐, 其通語也
21	1-32	(鄙語)	지역 표기 아님 (집계 제외)	薄努	故其鄙語曰薄努

* 연번 21(1-32)의 '鄙語'는 '속된 말'의 뜻으로 지역 표기가 아니므로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역 표기로서의 용례는 연번 1~20의 20회(19개 조목)이다.

〈표 5〉에서 보듯, 지역 표기로 쓰인 20회 가운데 19회는 예외 없이 '燕之北鄙'(2-8), '燕之外鄙'(2-34), '齊之北鄙'(3-5), '荊之南鄙'(10-2) 등과 같이 특정 국명·지명에 후행하여 그 변두리를 지시하는 '지명+之+鄙' 구조를 취하였다. 지명 없이 '北鄙'가 단독으로 표기된 것은 13-151 조목의 '𪔐' 사례가 유일하다. '燕' 계열만 보더라도 燕之北鄙·燕之外鄙·燕代之北鄙 8회가 모두 국명을 앞세워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단독형 '北鄙'의 이례성은 한층 두드러진다.

이러한 표기 관행은 '鄙'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근교형 지역 표기인 '北郊'·'外郊'·'西郊' 계열을 조사하면 모두 16회가 확인되는데, '楚之北郊'(1-7), '雍梁之西郊'(2-12), '燕之北郊'(2-29), '燕之外郊'(7-15) 등 예외 없이 특정 지명에 후행하며 지명 없는 단독 용례는 하나도 없다. 그중 7-9 조목의 '北燕之外郊'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北燕'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 지명으로 기능하면서 다시 '之外郊'라는 근교 표시를 취하고 있으니, 『방언』의 편찬자가 '北燕'을 하나의 지명 단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된다.

아울러 13-151 조목 내부를 보더라도, 𪔐를 제외한 여타 낱말 4례의 사용 지역은 '自關而西秦隴之間'·'晉之舊都'·'齊右河濟'로 모두 구체 지명이어서, 유독 𪔐만 막연한 '북쪽 변두리'로 병기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목 내적으로도 부자연스럽다.

또한 판본의 성립 연대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揚雄의 『방언』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현전 판본은 모두 송대 이후의 판각본이어서 오류가 적지 않은데, 현전 最古 판본이 1200년 李孟傳 刻本²⁷⁾인 데 반해 '北燕'으로 인

용한 『태평어람』(983년) 및 『집운』(1039년)은 이보다 앞선다. 곧 현전 판본보다 이른 시기의 두 문헌이 모두 '北燕'으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北鄙' 오기설의 유력한 논거가 된다.

3) 소결

『방언』 13-151 조목에서 '麴'의 사용 지역은 현전하는 주요 판본 본문에 모두 '北鄙'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거는 세 층위에서 확인된다. 첫째, 문헌 인용과 교감의 층위이다. 『태평어람』과 『집운』의 인용이 모두 '北燕'이고 王念孫·錢繹·周祖謨가 이에 근거하여 교감하였으며, 두 인용 문헌은 현전 最古 판본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이다. 둘째, 조목 내부의 정합성이다. 사용 지역이 병기된 5례 가운데 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 지명을 명기하였다. 셋째, 『방언』 전체의 지역 표기 체계이다. '鄙'의 지역 표기 20회 중 19회가 '지명+之+鄙' 구조이고 지명 없는 단독 형은 13-151 조목이 유일하며, 동일 유형인 '郊' 계열 16회에도 단독 용례가 없다. 특히 7-9 조목의 '北燕之外郊'는 '北燕'이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지명 단위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13-151 조목의 '北鄙'는 '北燕'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麴(13-151)는 『방언』의 북연 구역 어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²⁸⁾ 이는 종래 교감자의 판단에 의존해 온 '北鄙→北燕' 판독에 『방언』 자체의 지역 표기 체계와 판본 성립 연대라는 내적 근거를 더한 것이다.

27) 현전 最古 판본은 中國國家圖書館(舊 北京圖書館) 소장 南宋 慶元庚申(1200년) 李孟傳 刻本이며, 이후 출판된 『방언』 다수가 이를 저본으로 삼았으나 반드시 충실히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8) 다만 華學誠(2006: 994)이 匯證本 본문에 '北鄙'를 유지한 것은 위 교감설을 본문 확정의 근거로까지는 채택하지 않은 태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항목이 판본 본문이 아니라 인용 문헌과 후대 교감에 근거한 편입이라는 점에서, 다른 항목과는 판본상 근거의 성격이 다르다.

5. 결론

본고는 『방언』의 조선 구역 및 북연 구역 어휘 목록에서 그동안 누락되었거나 다른 낱말과 합산되어 온 세 낱말, 곧 𪛗(8-4)·涅(8-4)·𪛗(13-151)의 처리 문제를 『방언』 본문의 문맥과 訓義, '同訓異表記語'의 어형 병존 양상, 그리고 역대 주요 판본과 교감 견해를 통해 검토하였다. 본고가 새로 확립한 바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𪛗(8-4)는 조선·북연 구역의 공통 낱말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𪛗는 8-4 조목에서 공통 訓語 '鷄'에 대응하는 여타 5례(鷄·割鷄·鷄·抱·涅)와 문법적·배열상 대등하게 열거되어 있고, 이 배열은 역대 주요 판본에서 이견 없이 유지되며, 역대 교감자들은 오히려 𪛗의 音注를 통해 이 낱말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그럼에도 현대 연구자들의 기존 어휘 목록에서 𪛗만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제외되어 온 것은 배열의 대등성이라는 『방언』 자체의 기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涅(3-6)과 涅(8-4)은 字形이 같고 사용 지역도 (周祖謨의 '北'자 탈락 교감을 수용할 경우) 일치하지만, 목록 산정에서는 별개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조목은 대립하는 동훈이표기어(譌/抱)와 그 대립의 기반이 되는 공통 훈의('化'/'伏鷄')가 서로 다른 의미장에 속하며, 이는 편찬자가 두 낱말을 별개 조목에 배치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조선 구역 어휘의 약 절반이 동훈이표기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 지역의 동일성만으로 두 항목을 합산하는 종래의 처리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다만 두 항목은 多義 관계일 가능성이 크며, 본고의 처리는 어휘론적 지위 판정이 아니라 계수 단위 선택의 문제이다.

셋째, 𪛗(13-151)는 북연 구역 어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전 판본 본문의 '北鄙'는 『태평어람』(권853) 및 『집운』(支韻 頻彌切)의 인용이 모두 '北燕'으로 되어 있고 王念孫·錢繹·周祖謨가 이를 근거로 교감한 데 더하여, 본고가 새로 수행한 전수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方言校箋』 본문에서

'鄙'가 지역 표기로 쓰인 20회 가운데 19회가 '지명+之+鄙' 구조이며 지명 없는 단독 '北鄙'는 13-151 조목이 유일하고, 동일 유형인 '北郊·外郊·西郊' 계열 16회에도 단독 용례가 없다. 또한 13-151 조목 내부의 여타 4례가 모두 구체 지명을 병기한다는 점에서, 麤만 막연한 '북쪽 변두리'로 표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北燕'으로 인용한 『태평어람』(983년)·『집운』(1039년)이 현전 最古 판본인 1200년 李孟傳 각본보다 앞선 문헌 연대의 선후까지 고려하면, 이는 종래 교감자의 권위에 의존해 온 '北鄙→北燕' 판독에 『방언』 자체의 지역 표기 체계와 판본 계통이라는 두 겹의 내적 근거를 더한 것이다.

본고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저본은 周祖謨 『方言校箋』(1993)이다. ② 계수 단위는 '조목 단위의 어휘적 용법'으로, 동일 字形이라도 조목별로 대립하는 동훈이표기어와 공통 훈의가 다른 의미장에 속하면 별개 낱말로 계수한다. ③ 조선 구역은 '朝鮮'·'洌水' 병기 표기를 통칭하며, 북연 구역은 '北燕' 외에 燕之北鄙·燕之外郊·燕代之北鄙·燕之東北·北燕之外郊 등 별칭 표기를 모두 포함한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어휘 목록은 다음 <표 6> 과 같이 조정된다.

〈표 6〉 조선·북연 구역 어휘 목록의 조정 결과

구분	기존 선행연구	본고 조정 (조목 단위)	증감	[참고] 字形 단위
조선 구역	32례	34례	+2 (殷, 溷8-4)	33례
북연 구역	55례	58례	+3 (殷, 溷8-4, 麤)	57례
두 구역 공통 낱말	27례	29례	+2 (殷, 溷8-4)	28례
합산	60례	63례	+3	62례

* 기존 수치는 정재남(2024a: 77-81)의 목록에 따른 것이다. '조목 단위'는 동일 字形이라도 조목별로 대립하는 동훈이표기어와 공통 훈의가 다른 의미장에 속하면 별개로 계수하는 기준이고, '字形 단위'는 溷(3-6)과 溷(8-4)을 1례로 합산하는 기준이다. 어느 기준에서도 殷(8-4)와 麤(13-151)의 추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별 낱말의 내역은 <표 1> 참조.

한편, 이번 조정은 단순한 수치 증가에 그치지 않고 두 구역 어휘의 의미장

구성에 관한 후속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穀·涅(8-4)의 편입으로 8-4 조목 하나에서만 抱를 포함해 '알을 품은 닭-부화 직전-새끼 새·병아리'에 이르는 3례가 확보되어, 조류의 번식 단계를 세분하는 어휘장이 이 구역에 존재하였음이 한층 분명해진다. 특히 麴는 성격이 다르다. 麴는 通語 '麴'(누룩)에 대응하는 지역형 7례 가운데 하나로, 이것이 북연 구역 어휘로 확정되면 종래의 목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발효·양조 관련 어휘층이 이 구역에 편입된다. 이는 곡물 가공 및 발효 기술과 관련된 낱말이 어떤 언어적 경로로 이 구역에 정착하였는지, 나아가 해당 어휘층이 주변 언어의 동일 의미장 어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후속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목록 한 항목의 추가가 특정 생업·물질문화 영역 전체를 논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라는 점에서, 어휘 목록의 확정이 왜 연구의 기초 과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본고에는 한계도 남는다. 첫째, 麴의 편입은 판본 본문이 아니라 타 문헌의 인용과 후대의 교감에 근거한 것이어서, 華學誠(2006)처럼 匯證本 본문에 '北鄙'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목록 작성에서는 각 항목의 판본상 근거 등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涅의 처리에서 보듯 계수 결과는 '낱말'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직접 의존하므로, 조목·훈의·어형 병존을 아우르는 계수 단위의 이론적 정교화가 요구된다. 셋째, 본고는 목록의 확정에 논의를 국한하였으며, 추가된 3례의 언어 계통 및 주변 언어와의 대응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넷째, 穀의 사례처럼 조목 내 대등 배열임에도 목록에서 제외된 낱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고가 제시한 기준을 『방언』의 조선·북연 구역 전체 조목에 일괄 적용하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揚雄 著, 周祖謨 校注, 『方言校箋』, 北京: 中華書局, 1993.
- 揚雄 著, 華學誠 校注, 『揚雄方言校釋匯證』, 北京: 中華書局, 2006.
- 揚雄 著, 戴震 所著, 이연주 · 이연승 번역, 『方言疏證』 전3권, 서울: 소명출판, 2012.
- 공재석, 「한대 『方言』 중 조선방음에 관하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 김양진, 「고조선어와 만주어(여진어)의 비교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 리상호, 「기원전 4세기 이전 고조선의 서단과 중심지에 대하여(하)」, 『역사과학』 3, 사회과학원, 1964.
- 리지린(1962), 이덕일 해역,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서울: 도서출판 말, 2018.
- 엄순천, 「揚雄의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 지역 단어들과 어원국어 비교」,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 이성규, 「고조선어와 몽골어의 비교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 이연주, 「揚雄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중국어문학』 59, 영남중국어문학회, 2009.
- 이연주, 「양웅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 지역 어휘와 이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 이현숙, 「《方言》中の 朝鮮涑水之間語彙釋例研究」, 『중어중문학』 17,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 박대재, 「고조선의 언어구역과 燕의 동북지역」, 『先史와 古代』 43, 한국고대학회, 2015.
- 정재남, 「揚雄 『方言』에 수록된 北燕 어휘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47, 동아시아고대학회, 2017.

- 정재남·이도학·변지원, 「중국 漢代 방언사전『方言』에 수록된 복연 지역 어휘와 고전 몽골어의 친연관계 고찰」, 『몽골학』 57, 한국몽골학회, 2019.
- 정재남, 「언어로 본 고조선의 영역 : 漢代『方言』에 수록된 朝鮮·北燕 구역 어휘의 정체성 및 지리적 범위 탐구」, 『고조선단군학』 44, 고조선단군학회, 2021.
- 정재남, 「漢代『方言』에 수록된 고조선 지역 방언 어휘 '𪛗'의 연원 및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47, 고조선단군학회, 2022a.
- 정재남, 「漢代『方言』의 朝鮮·洌水 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중국 上古 문헌 用例 분석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2022b.
- 정재남, 「漢代『方言』의 복연 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중국 上古문헌 用例 분석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50, 고조선단군학회, 2023a.
- 정재남, 「漢代『方言』에 수록된 北燕·朝鮮洌水지역 同訓異表記語 분석」, 『동아시아고대학』 71, 동아시아고대학회, 2023b.
- 정재남, 「漢代 北燕·朝鮮지역 어휘 연구: 揚雄『方言』에 수록된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a.
- 정재남, 「『방언』에 수록된 北燕·朝鮮洌水지역 입말 단어 𪛗에 대한 분석」, 『통합인문학연구』 16-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4b.
- 정재남, 「'범'[虎]의 고대 문헌 표기와 주변 언어의 맹수명 어휘 간 상관성에 대한 분석 試論: 漢代《方言》의 '朝鮮' 구역 낱말 '貉'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42, 국어사학회, 2026.
- 松江崇, 「揚雄『方言』所収の「北燕」「朝鮮」方言語彙の性質」, 『岩田礼教授 荣休纪念论文集』上册, 日本地理言語学会, 2022, 134-150쪽.
- 吳吉煌, 『兩漢方言詞研究: 以《方言》·《說文》爲基礎』,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
- 王智群, 『《方言》與揚雄詞彙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
- 王彩琴, 『揚雄《方言》用字研究』,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
- 劉君惠·李恕豪·楊鋼·華學誠, 『揚雄《方言》研究』, 成都: 巴蜀書社, 1992.

- 劉葉秋, 『中國字典史略』, 北京: 北京出版社, 2015.
- 李敬忠, 「『方言』中的少數民族語詞試析」, 『民族語文』 1987-3, 中国社会科学院民族研究所, 1987.
- 伊藤英人, 「朝鮮半島における言語接触: 中国圧への対処としての対抗中国化」, 『語学研究所論集』 18,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2013.
-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3.
- 周振鶴・游汝杰, 『方言與中國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6.
- 陳榴, 「《方言》中‘朝鮮’語詞的解讀」, 『중국어문학』 45, 영남중국어문학회, 2005.
- Chittick, Andrew, “Vernacular Languages in the Medieval Jiankang Empire”, *Sino-Platonic Papers*, 250, 2014.

Abstract

A reconsideration of the "Chosŏn" and "Northern Yan" regional vocabulary recorded in the Han Dynasty *Fangyan*: On whether to add 𪔐 (kòu), 涅 (niè), and 𪔐 (pí) to the Word List

Chung, Jae Nam

The *Fangyan* (方言), compiled during the Han dynasty, is the oldest surviving record of regional words in Chinese linguistic history. Prior studies have counted its "Chosŏn" and "Northern Yan" vocabulary—both tied to the historical territory of Old Chosŏn—at sixty items (32 and 55, with 27 shared). Through a re-examination of the relevant contexts and glosses (訓義), a comparison of cases of "synonymous words with differing graphic forms" (同訓異表記語), and a review of the collation of the major editions, this study argues that three further items warrant inclusion: 𪔐 and 涅 as vocabulary shared by the two regions, and 𪔐 as specific to Northern Yan. On the counting unit adopted here, the revised inventory is 34, 58, 29 shared, and 63 in total—an expansion of one of the very few contemporaneous sources for the earliest history of Korean.

Key words : *Fangyan*, Old Chosŏn, Chosŏn–Northern Yan region, synonymous words with differing graphic forms, kòu (𪔐), niè (涅), pí (𪔐)

투 고 일 : 2026. 7. 10. / 심 사 일 : 2026. 7. 15. ~ 2026. 8. 15. / 게재확정일 : 2026. 8. 20.

